

#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융합연구

정성원<sup>1</sup>, 황라일<sup>2</sup>, 이영신<sup>\*</sup>

<sup>1</sup>극동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신한대학교 간호학과

##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SungWon Jung<sup>1</sup>, Rahll Hwang<sup>2</sup>, YoungShin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Far East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두 개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3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과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총 81명의 설문 응답에 대해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남자 대학생보다 높았으며, 간호학이라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경우 대학생활에 만족한다고 한 학생들이 불만족한 학생들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트레스원은 주로 의료인, 환자, 보호자들의 태도와 실습환경, 정신적 요인 이었다. 실습 중 타 직종 및 대상자와 가족과 지속적인 응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융합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습 전에 중재가 시행되어야 한다.

•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학생활만족, 전공만족, 임상실습스트레스,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mpus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in C. do province and college students in S city. All 81 subjects was analyzed by SPSS 21.0ver. Campus life satisfactions were differences on gender and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nursing students with campus life had lower level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han unsatisfied students, especially in health care giver's attitude, patient's attitude, clinical circumstances and mental factor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nvergent extracurriculum program should be pai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before clinical practice.

•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onverg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재학 중 이론 교과목과 교내 실습 뿐 아니라 임상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즉 임상실

\*Corresponding Author : 이영신(florence@kdu.ac.kr)

Received February 28, 2017

Accepted April 20, 2017

Revised April 7, 2017

Published April 28, 2017

습을 통해 간호 관련 지식, 기술과 더불어 대상자에 대한 태도적 측면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실습 교육은 질병관리, 간호과정 적용,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 팀 내와 다학제팀과의 팀워크, 다양한 특성의 인구 집단의 간호, 위임과 관리, 사례관리, 건강관련 데이터 관리, 프리셉터들과의 실무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간호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기회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성취 하도록 돕는다[1].

그러나 간호학생은 실습 시 낮은 환경, 자신감 결여, 과도한 과제, 역할 갈등 및 전문지식 부족,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돈,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환자와 보호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예컨대 간호학생은 면허취득을 위해 간호교육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실습시간 1000시간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3,4학년 간호학과 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를 떠나 임상실습기관에 배치되어 보내게 된다. 이러한 임상실습은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기관, 실습기간, 임상실습지도자 등 실습에 있어서 학생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통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적고, 임상실습에 따른 경험의 결과가 학점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한편,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교육 수혜자인 대학생의 요구에 근거한 교육 제공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의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활만족은 대학과 관련된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충족의 정도로 학생이 대학생활에 대하여 갖는 기대감·개인의 심리적 요인등의 영향을 받는다[8]. 또한,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고민과도 관련되며[11], 실제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만족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임상실습교육의 긍정적 효과 증대 뿐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로 학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와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6, 13, 14].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 및 자아존중감[3], 불안 및 자율신경계 변화[4] 등 정서적 측면의 결과를 탐색한 연구와, 감성지능·의사소통능력 등과의 관계[5], 사회적지지·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6],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셀프 리더십·자기노출을 분석한 연구[7] 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원인적 측면에서부터 스트레스 경감과 관련된 개인적 역량차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대학생활만족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대학생활만족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대학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만족도 제고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소재한 K대와 S시에 소재한 S대 간호학과 재학생중 교과과정 상 임상 실습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서 본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 표집한 각 대학의 남녀 간호 대학생에게 배부하여 총 81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C도 소재에 있는 4년제 대학인 K대 간호학과에서 3학년에 재학하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과 S시 소

제에 있는 3년제 대학인 S대 간호학과 2,3학년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연구자가 C도 소재에 있는 4년제 대학인 K대 간호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하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S시 소재에 있는 3년제 대학인 S대 간호학과 2,3학년 학생들에게는 '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으며, 결측값 없이 취합된 81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성별, 실습 주수,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 임상실습 만족, 학업성적), 임상실습 스트레스 58문항으로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황성자[15]가 개발한 총 58문항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영역 중 상황특성은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보호자태도 6문항, 실습환경 8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 갈등 2문항의 총 31문항이고 개인특성은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기술적 요인 6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 총 17문항이며 외부적 조정요인은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성자의 연구[15]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4 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설명글을 설문지 상단에 기술하였다. 답의 비밀보장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chi^2$ 로 분석하였다. 성별과 전공만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Scheffe를 선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 3.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먼저 성별 분포는 여자(85.2%)가 남자(14.8%) 보다 많았고,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65.4)가 가장 많았고, 좋다(9.9%)에 불과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54.3%)이 가장 많았고 만족(28.4%)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53.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만족(33.3%)으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만족도는 보통(53.1%), 만족(30.9%) 순이었고, 취득 학점은 3.5~3.9학점(39.5%)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 기간은 8주 미만 86.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Table 1> General statistics

Variables	Category	N=81
Gender	Female	69(85.2%)
	Male	12(14.8%)
Self-rated health	Good	8(9.9%)
	Neutral	20(24.7%)
	Bad	53(65.4%)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Good	23(28.4%)
	Neutral	44(54.3%)
	Bad	14(17.3%)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11(13.6%)
	Neutral	43(53.1%)
	Bad	27(33.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ood	25(30.9%)
	Neutral	43(53.1%)
	Bad	13(16.0%)
Grade point average	4.0 ↑	12(14.8%)
	3.5~3.9	32(39.5%)
	3.0~3.4	26(32.1%)
	3.0 ↓	11(13.6%)
Practice Duration	8wks >	11(13.6%)
	8wks ≤	70(86.4%)

3.1.2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만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14.8%였는데, 그 중 대학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0명으로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8주 이상 실습한 학생들 중 30%가 대학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 75.5%가 대학생활을 보통 또는 불만족 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11명(13.5%) 모두 대학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실습 만족이 높은 학생 25명(30.9%) 중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11명이었고, 임상실습만족과 대학생활만족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전학기 학점이 4.0 이상인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불만족 하는 경우가 없었고 학점이 3.0 미만인 학생 중 36.4%는 대학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Table 2> General statistics by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Variables	Category	N=81		Campus life: good n=23 (28.4%)		Campus life: neutral n=44 (54.3%)		Campus life: bad n=14 (17.3%)		Fisher's exact test*	p
		n	%	n	%	n	%				
Gender	F	69 (85.2%)	23	33.3	36	52.2	10	14.5	6.49	.04	
	M	12 (14.8%)	0	0	8	66.7	4	33.3			
Self-rated health	G	8 (9.9%)	3	37.5	2	25.0	3	37.5	8.23	.08	
	N	20 (24.7%)	7	35.0	13	65.0	0	0			
	B	53 (65.4%)	13	24.5	29	54.7	11	20.8			
Satisfaction with major	G	11 (13.6%)	11	100	0	0	0	0	57.32*	<.001	
	N	43 (53.1%)	8	18.6	35	81.4	0	0			
	B	27 (33.3%)	4	14.8	9	33.3	14	51.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	25 (30.9%)	11	44.0	11	44.0	3	21.4	6.13	.19	
	N	43 (53.1%)	9	39.1	27	62.8	7	16.3			
	B	13 (16.0%)	3	23.1	6	46.2	4	30.8			
Grade point average	4.0 ↑	12 (14.8%)	4	33.3	8	66.7	0	0	4.33	.63	
	3.5~3.9	32 (39.5%)	8	25.0	17	53.1	7	21.9			
	3.0~3.4	26 (32.1%)	7	26.9	13	50.0	6	23.1			
	3.0 ↓	11 (13.6%)	4	36.4	6	54.5	1	9.1			

Practice Duration	8 wks ↓	11 (13.6%)	2	18.2	7	63.6	2	18.2	.68	.71
	8 wks ↑	70 (86.4%)	21	30.0	37	52.9	12	17.1		

3.1.3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3.43±4.5로 남학생보다 높았다. 8주 이상 실습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은 3.41±.49, 8주 미만 실습 경험 학생은 3.41±.49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3.51±.45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대학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3.64±.46)는 보통(3.33±.43) 또는 불만족(3.20±.48)으로 응답한 대상자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만족이 높은 학생들에서 3.67±.50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고, 실습만족이 높은 학생에서 3.41±.44로 스트레스가 높았다. 직전 학기학점의 경우 4.0이상 (3.49±.48), 3.0~3.4(3.43±.49), 3.0미만(3.39±.43), 3.5~3.9 (3.33±.50)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았다<Table 3>.

<Table 3> Clinical Practice stress on General statistics

General statistics	Category	mini	max	clinical stress	t or F	p (Scheffe)
				M±SD		
Gender	Female	2.52	4.36	3.43±.45	1.77	.08
	Male	2.07	4.12	3.17±.61		
Self-rated health	Good	2.69	3.79	3.28±.39	.81	.45
	Neutral	2.66	4.36	3.51±.45		
	Bad	2.07	4.36	3.39±.48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Good(a)	2.81	4.36	3.64±.46	4.77	.01 (a>b=c)
	Neutral(b)	2.22	4.12	3.33±.43		
	Bad(c)	2.07	4.12	3.20±.48		
Satisfaction with major	Good	2.81	4.36	3.67±.50	2.31	.11
	Neutral	2.22	4.12	3.34±.42		
	Bad	2.07	4.12	3.37±.5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ood	2.69	4.36	3.41±.44	.03	.97
	Neutral	2.22	4.12	3.40±.45		
	Bad	2.07	4.36	3.37±.67		
GPA (Before semester)	4.0 ↑	2.76	4.12	3.49±.48	.36	.78
	3.5~3.9	2.07	4.36	3.33±.50		
	3.0~3.4	2.52	4.36	3.43±.49		
	3.0 ↓	2.79	4.09	3.39±.43		
Practice Duration	8wks >	2.76	4.07	3.31±.41	-.56	.58
	8wks ≤	2.07	4.36	3.41±.49		

### 3.2 대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에 만족(3.64±.46)하는 경우 보통(3.33±.43) 또는 불만족(3.20±.48)하는 경우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Table 4>.

<Table 4> Clinical practice stress by campus lif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ampus life: good(a) n=23 (28.4%)	Campus life: neutral(b) n=44 (54.3%)	Campus life: bad(c) n=14 (17.3%)	F	p (Scheffe)
	M±SD	M±SD	M±SD		
Total	3.64±.46	3.33±.43	3.20±.48	4.77	.01 (a>b>c)
Healthcare giver's attitude	3.75±.46	3.78±.58	3.28±.86	3.18	.04 (a=b, b=c, a>c)
Patients and family's attitude	3.84±.57	3.59±.60	3.32±.58	3.47	.03 (a=b, b=c, a>c)
Clinical Circumstance	3.54±.50	3.23±.44	3.23±.61	3.39	.04 (a>b>c)
Clinical Situation	3.45±.60	3.09±.50	3.13±.77	3.11	.05
Role conflict	3.39±.67	3.18±.81	3.07±.70	.92	.40
Psychological factor	3.74±.72	3.34±.57	3.01±.72	5.60	.01 (a=b, b=c, a>c)
Knowledge-skill factor	3.63±.62	3.36±.55	3.31±.69	1.92	.15
Social factor	3.35±.80	2.79±.79	2.46±1.04	5.49	.01 (a>b>c)
Homework	4.19±.66	3.85±.77	3.84±.88	1.66	.19
Academic schedule	3.84±.65	3.52±.63	3.34±.67	3.32	.05

대학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에 비해 의료인(3.75±.46), 환자 보호자의 태도(3.84±.57), 심리적 요인(3.74±.72)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대학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보통 또는 불만족으로 응답한 참여자에 비해 실습환경(3.45±.60), 사회적 요인(3.35±.80)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실습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하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학생활 만족에 따라 성별, 실습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 실습만족, 성적 등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였고 그 중 성별과 전공만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만족의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거나, 연구결과에서 남녀학생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4, 16]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성별 이외의 일반적 특성에서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전체 간호학과 학생 중 남학생은 15.9%인 점[17]을 볼 때 표본의 남녀비율은 실제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 비율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기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 문제중심대처(problem-focused coping), 정서중심대처(emotional focused coping)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이 높았던 것처럼[18, 19, 20] 대학생활 만족이 높은 학생들의 전공만족이 높았다. 대학은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주거지역을 바탕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이 대학 선택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 만족이 임상실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처럼,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21],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19, 22], 일반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16] 임상실습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박현주와 장인순[20]은 우울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이 낮다고 하였다. 이처럼 만족감은 개인의 경험, 지적·정서적 역량 등이 영향을 미치는 바 학생 개별적 요구에 준하여 임상실습만족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의 태도', '심리적 요인', '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간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23] 여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24, 25]와 다른 결과였다. 남문희와 김혜옥[26]의 연구도 감정노동으로 여겨지는 임상실습과 전공만족과의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결과를 같이 한다. 임상실습 자체를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료인의 태도, 환자-보호자의 태도, 심리적 요인의 경우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의료인의 태도’와 ‘환자-보호자 태도’요인은 간호학과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실습을 수행하여야 하는 방사선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로 느끼는 부분이다[14, 27].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양상을 ‘긍정적 해결형’, ‘상황 무시형’, ‘자가 해결형’, ‘대화형’의 유형으로 확인한 연구[28]를 볼 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직면과 해결의 방법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의료진이나 환자-보호자가 실습학생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진보다 숙련도가 낮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임상실습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실습 평가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도 임상실습은 스트레스로 여기게 된다. 개인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수자들의 중재가 요구된다.

## 5. 결론 및 제언

간호학과 학생들은 취업 전 임상실습을 통해 업무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며 이는 실제 취업 시 의료기관이나 부서 선택에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수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일반적 특성, 특히 대학생활만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 위하여 58개 문항의 스트레스 도구[18]를 이용하였다.

대학생활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전공만족이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33%가 대학생활을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 전원은 대학생활이 보통

또는 불만족 하다고 하였다. 전공만족으로 응답한 학생 모두 대학생활을 만족하였지만 전공 불만족이라 응답한 학생은 과반수가 대학생활에 불만족했다.

성별 차이에 영향을 준 스트레스 하부요인은 의료인의 태도와 심리적인 요인, 과제물이었고 전공만족정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하부요인은 없었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학생들보다 의료인의 태도, 환자 보호자 태도, 심리적 요인과 같은 하부요인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활에 만족하더라도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대학생활 동안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임상실습이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로 실습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와 같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므로 많은 대학에서 이미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간관계론’, ‘의사소통론’ 같은 이론 교과목외에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실습 전 선행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1] J. Liaschenko, E. Peter,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and practice and work" *Journal of Advance Nursing*, Vol. 46, No. 5, pp.488-495, 2004.
- [2]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1, pp.98-106, 2005.
- [3] S. Y. Kim, S. Y. Lim, H.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 No.4, pp.59-64, 2015.
- [4] J. I. Lim, J. S. Lee,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Biol Nurs Sci*, Vol.13, No.2, pp.102-108, 2011.
- [5] O. S. Lee, M. O. Ko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Vol.14, No.6, pp. 2749-2759, 2013.
- [6]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 [7] S. H. Han, H. S. Yu,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 229-240, 2012.
- [8]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 [9] M. Y. Kim, K. R.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meaning in life and satisfaction about college life”, *KPA*, pp. 458-458, 2015.
- [10] H. J. Kim,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376-386, 2014.
- [11] I. S. Kim, J. Y. Jung,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groups on campus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Difference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eoul 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 No. 3, pp. 241-260, 2010.
- [12] S. J.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 - Efficacy, and Self -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13] M. H. Chin, H.A. Nam, S.H. Kim,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n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0, No. 4, pp. 129-13, 2015.
- [14] S. J. Park, B. J. Park,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1, No. 4, pp. 313-322, 2013.
- [15] S. J. Hwh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actors related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14(1), pp. 35-54. 2002.
- [16] K. N. Kim,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2, pp. 55-65, 2014.
- [17] S. S. Lee, “2 in 10 nursing students are male”,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0751&yy=2016](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0751&yy=2016)
- [18]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0, No. 1, pp. 24-36, 2015.
- [19]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3-61 Vol. 18, No. 1, pp. 53-61, 2012.
- [20]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 [21] H. W. Kwak, J.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Vol. 17, No. 2, pp. 147-155, 2016.
- [22] K. E. Jang,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35-42. 2015.
- [23] J. Kim, J. Lim, “Male Nursing Students Majoring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Adapt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pp. 91-100, 2016.

- [24] S. G. Shin, H. Y. Le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d Related Variables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8, pp. 266-274, 2013.
- [25]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 [26] M. H. Nam, H. O.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63-273, 2016.
- [27]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 [28]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29-39, 2014.

저자소개

정 성 원(SungWon Jung)

[정회원]



- 2001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자보건, 공공성

황 라 일(RahIl Hwang)

[정회원]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보건정책

이 영 신(YoungShin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간호철학, 보완대체요법